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08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잠실개표소 시위 나홀차...핸드볼 선수들o타이완 기자 봉변 당해	정치	주요뉴스
2	반도체발 급락에 코스피o코스닥, 잇단 서킷브레이커	경제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8일) 나홀 차에 접어들면서 갈등과 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5 출입구에는 오늘 오전 10시쯤 태극마크 선수복을 입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6명이 도착해 "문을 열어달라"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24일 중국 산시성 진중시(晋中市)에서 시작되는 제25회 세계여자 주니어선수권대회(U20) 출전을 앞두고 연습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이 시위로 봉쇄되자, 인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대신 훈련하기 위해 훈련기구를 꺼내려 온 것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얼굴 대조를 위해 경기 영상을 보여달라"며 막아섰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경찰이 "아직 주니어 선수라 영상은 없는 거 같다"며 협조를 구하고, 선수들이 "안에 있는 공인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참가자들은 "왜 꼭 그 공이어야 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선수가 "제발요"라며 손을 비비는 등 '간청'한 끝에 시위 참가자들은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시 24분 선수들이 공이 담긴 수레와 비닐백 등 훈련용품을 갖고 나오자 시위 참가자들이 몰려들어 '소지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 부정선거 증거물인 투표용지 등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20세 안팎의 선수들은 떠밀리듯 검사에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남성 시위 참가자는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가 경찰 등에게 "성적추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다고 합니다. 선수들과 함께 온 감독은 "시위가 하루 이틀 내에 끝나면 기다리겠지만 2~3주가 걸리면 그 손해를 감수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5분 뒤에는 한 외신 기자가 역시 '봉변'을 당했습니다. 경기장 앞에서 중국어로 들리는 언어로 카메라 앞에서 생중계를 하는 듯한 모습에 시위 참가자 20여 명이 몰려와 기사를 둘러싸고 경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아니냐", "하도 위장이 많아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유튜브 중계를 하는 참가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 듣는 사람이 있느냐"며 주위에 통역을 요청했습니다. 약 5분 뒤 방송이 끝나자 중국어를 구사하는 시위 참가자가 다가가 소속을 물었고, "타이완"이라는 답을 듣고서야 이 기자에게 길을 터줬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내 진보성향 매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5분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천600여 명이 재선거를 요구하며 시위 중입니다. 자정(8천여 명)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들은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경기장 출입구 10곳을 봉쇄 중이나 구호 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11시 15분 기준 올림픽공원 내 실시간 인구는 9천500~1만 명으로, 60대 이상(26.2%)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말 내내 20대가 30% 안팎으로 최다 연령층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위 참가자 상당수가 주말이 지나면서 학교와 직장에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 참가자 규모와 연령 구성이 변하며 시위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주말 동안 기성 정치세력을 배제하자며 '재선거'로 통일했던 구호는 오늘 강성보수 단체가 주장해온 '부정선거' 쪽으로 기울며 노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선거만 외쳐달라", "태극기만 흔들어달라"고 적힌 시위 벽보에는 굵은 펜으로 "부정선거 구호 가능", "성조기 가능" 등의 문구가 덧씌워진 상태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참가자가 '재선거'만 외쳐야 한다는 참가자를 강성진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으로 몰아세우며 크고 작은 언쟁도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기동대 350명가량을 현장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일부 참가자는 경찰이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도면을 든 모습을 목격했다며 강제 해산 조치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며 술렁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현재 돌발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8일) 나홀 차에 접어들면서 갈등과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6명이 훈련기구를 꺼내려 왔다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소지품 검사를 당했고, 시위 참가자들은 외신 기자를 경계하기도 했다.

## (2)기사/뉴스요약

승승장구하던 글로벌 반도체주가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8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3분 42초부터 20분간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코스피가 전일종가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일시 중단됐으며, 주식 관련 선물·옵션 시장의 거래도 중단됐습니다.

코스피는 발동 당시 전 거래일보다 685.85포인트(8.40%) 내린 7,474.74를 나타냈습니다.

20분 뒤인 오전 9시 23분에는 유가증권시장 매매가 재개됐으며,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매매로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매매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올해 3번째이며, 역대로는 9번째입니다.

올해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지난 3월 4일과 9일 각각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오전 9시 34분에는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도 잇달아 발동되면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증가보다 81.30포인트(6.26%) 내린 1,216.85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 5일 이후 1거래일 만입니다.

이로써 코스피 시장 내 사이드카는 올해만 22번 발동되며 이중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는 각각 11번씩 울렸습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삭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들어 코스닥 지수 낙폭이 8%선을 넘어서자 한국거래소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 오후 2시 36분 52초부터 20분간 코스닥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80.59포인트(8.03%) 내린 921.85를 가리켰습니다.

올해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4일 이후 두 번째이고 역대 발동 횟수는 이번까지 총 12차례입니다.

앞서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초반 급락에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선물은 전일 증가보다 7.95% 내렸으며 코스닥150지수는 8.11% 급락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하락분을 일부 만회했지만, 오후 들어 재차 낙폭이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하락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핵심: 승승장구하던 글로벌 반도체주가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8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코끼리 해피	미국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의 상징이자 전 세계 동물권 운동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던 아시아코끼리로, 2026년 5월 26일 5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특히 2018년 해피를 원고로 한 세계 최초의 '비인간 인신보호 소송'이 제기되면서 동물권에 대한 전 세계적 논쟁을 일으켰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하고 국민의힘이 4곳에서 승리했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각각 차지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09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시험장 갔는데 시험지 안 준다"...2030 분노 키운 이유	사회	주요뉴스
2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4만 달러' 시대?...국민 체감은 왜	경제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앵커>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분노하고 나선 건 대학생을 비롯한 20·30대 청년들입니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왜 유독 2030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참정권 시위에서 2030 청년 세대가 공통으로 자주 언급한 단어는 '공정'입니다.

[최선우/서울 강동구 :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공정해야 할 투표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청년 참가자들은 이번 사태에서 이념 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시위 참가 시민 :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두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최초의 세대.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자라는 내내 극한 경쟁에 내몰려야 했던 청년 세대에겐 투명한 평가 기준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이번 선관위 사태를 보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험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충격이죠. 나이든 세대가 느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분노감을 느꼈을 것이다.]

공동체의 미래를 논하는 선거에서 그동안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요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선거를 통한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던 청년들이 투표에서마저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선거 때가 되면 청년이라든지 미래 세대 얘기하지만 효능감이 잘 없었던 부분들이 있겠죠.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강한 권리 이런 부분들을 침해 당했다...]

입시와 취업의 문턱에서 0.1점 차로 승패가 갈려온 청년들에게 '절차의 공정성'은 공동체의 근간을 지탱하는 규칙입니다.

[이신화/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경제적 불만이나 기성 세대에 누적된 불신이 겹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정치적 메시지를 오히려 기성 세대한테 준 것 같아요.]

공정을 생존의 문제로 여기는 2030 청년 세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핵심:**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분노하고 나선 건 대학생을 비롯한 20·30대 청년들로,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2)기사/뉴스요약

<앵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생산과 소득이 모두 크게 성장했습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이를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제 지표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인식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3만 6천900달러였습니다.

1인당 GNI는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건데, 12년째 3만 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일본과 타이완을 앞서기도 했지만 지난해 다시 역전당했습니다.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질지 1분기 우리 상황을 보겠습니다.

생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국내총생산, GDP는 전 분기보다 1.8%,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 늘었습니다.

국민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인 실질 GNI는 1년 전보다 13.2%나 늘어 GDP 증가 폭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생산이 늘어난 것보다 소득이 더 크게 늘었다 얘기입니다.

특히 물가와 가격 변화까지 포함한 명목 수치로 보면, 생산과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성장을 보인 건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같은 양을 팔아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늘어난 소득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늘어난 소득을 들여다보면 기업 몫은 지난해에 비해 29.9% 늘었지만, 근로자 몫은 6.9%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가계의 소득 개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셈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 세수 확보는 확실한 만큼 양극화를 막고 낙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당장 내 삶이 좋아졌냐라고 느끼시는 분들의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고물가로 인해서 특히 이제 고통을 심하게 받는 계층들에 대한 재정 정책적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은 올해는 1인당 GNI가 4만 달러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 실적과 원/달러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핵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생산과 소득이 모두 크게 성장했지만, 경제 지표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인식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 일일 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플라밍고 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알바니아의 무인도 사잔섬과 인근 즈베르네츠 해안가에 설립하려는 16억 달러 (약 2조 4000억 원) 규모의 초호화 리조트 개발사업에 반발하며 2026년 6월 1일부터 일어난 시위를 말한다. 리조트가 들어설 곳이 플라밍고 물범, 바다거북 등의 산란지가 있는 습지보호구역 일대라는 점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여기에 해당 개발사업이 환경보호 평가나 주민공청회도 없이 기초공사부터 시작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데이터랜드	튀르키예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레픽 아나돌 부부가 공동 설립한 세계 최초의 생성형 AI 미술관으로, 2026년 6월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 개관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10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꽤 다 무시한 '50% 이상 인쇄' 지침...무려 1,471곳 달했다	사회	주요뉴스
2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 수사 보안 기능 분산 이관	정치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 수의 50% 미만이었던 투표소가 1,471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투표소 10곳 중 1곳에 달하는 숫자로, 중앙선거위의 '전체 선거인수 50% 하한' 지침도 유명무실했던 셈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중앙선거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선 전국 투표소 1만 4,288곳 가운데 유권자 수 대비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동구 수정 5동 제2투표소와 전남 여수 시전동 제4투표소로 각각 45.5%였습니다.

두 곳 모두 선거인 수가 2,197명이었지만 투표용지는 1천 매만 인쇄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인쇄 비율 50% 미만 투표소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였고, 인천, 전남 광주, 전북, 서울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성북구와 광진구, 송파구에 인쇄 비율 50% 미만 투표소가 특히 집중됐습니다.

선거 당일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도 '50% 미만 인쇄' 투표소가 많았는데, 용지가 부족했던 91곳 가운데 42곳이 50% 미만으로 인쇄된 곳이었습니다.

중앙선거위에 최초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알린 서울 송파 가락2동 제3투표소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47.8%였습니다.

항의하는 시민들과 투표소 직원들이 대치해 본투표 사흘 만에 투표함을 이송할 수 있었던 송파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인쇄 비율도 49.2%였습니다.

중앙선거위는 내부 규정과 지침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지침에 맞춰 각 시·군·구 선관위별로 의결을 거쳐 선거인 수의 50~100%로 정했는데, 실제 인쇄의 경우 선거인 수 1천 명 이상 투표소는 투표용지 100장 미만을 버림하도록 돼 있어 기준과 차이가 났다는 설명입니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 송파1동 제4투표소의 경우 선거인수 3,999명으로 1,999매를 준비해야 했지만, 99장을 버림해 1,900장만 인쇄해 불가피하게 '50% 미만 인쇄' 투표소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쇄 비율 50% 기준만 정확히 따랐다면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투표소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일한 행정주의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일부 투표소는 '버림'하지 않고 '올림' 기준을 적용해 투표용지를 넉넉히 인쇄하는 등 지침 적용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 수의 50% 미만이었던 투표소가 1,471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기사/뉴스요약

정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뒤 군 내 권력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방첩사는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맡아 온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습니다. 안보 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 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 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첩사가 군 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 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됩니다.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이관하면서 방첩사를 해체하고, 동향조사 등 논란이 된 기능은 폐지하는 방안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방첩사의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는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체로 방첩사가 그동안 유지해 온 골격은 사실상 처음으로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 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방첩사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민주적 통제체계 부재 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개혁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정부는 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기능과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지휘·감독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외부 감시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률로 명시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방첩사의 기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도 탈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 인사 운영 시스템은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다음 달 말 새로운 조직 창설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뒤 군 내 권력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하이록스	총 8km를 달리면서 8개의 고강도 근력 운동을 번갈아 수행하는 실내 피트니스 종목으로, 지구력을 비롯해 근력·순발력·심폐지구력·정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터벌 방식의 복합 경기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마나피카 후마니타스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 후 처음으로 발표한 회칙(回勅)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핵심 주제로 하고 있다. 회칙은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 신자와 주교들에게 전하는 최고 권위의 사목 교서로, 교서 권고·담화·연설·강론 등 교황 관련 문헌 가운데 가장 강한 구속력과 교도권적 권위를 지닌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11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후보들 표 다시 집계"...개표 결과 발표했는데 바뀌었다	사회	주요뉴스
2	"쓴 적도 없는데" 피해 속출...'29만 9천 원' 공포의 문자	경제	주요뉴스

### (1)기사/뉴스요약

<앵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개표 결과 오류는 지금까지 경기와 전북 2곳의 교육감 선거에서 확인됐습니다. 실제 투표 내용과 다른 숫자가 개표 결과로 발표되면서 유권자 1천500여 명의 표심이 그대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경기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숫자는 693만 911명으로 앞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권자 424명의 투표가 이 결과에서 빠져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기선관위는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 임태희 후보는 201표, 안민석 후보는 216표를 더 받았다고 정정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가 투표소 이름을 잘못 입력하면서 다른 곳의 개표 결과가 반영됐던 겁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경기교육감 후보 2명의 순서가 각각 다르게 인쇄된 2가지 유형의 투표용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정정 결과, 이곳에서 임 후보는 31표 줄어들었고, 안 후보는 31표 늘어났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확인됐습니다.

유권자 1천104명의 투표지를 개표 결과에서 누락한 겁니다.

경기 광주시의 개표 입력 오류와 마찬가지로 투표소 이름을 잘못 적으면서 다른 투표소 결과가 중복 입력된 겁니다.

천호성 후보는 43표를, 이남호 후보는 62표를 원래보다 적게 받게 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지난 5일 해당 오류를 인지했는데도, 나흘이나 지난 뒤에야 전북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문제가 된 두 지역 선관위는 각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선관위를 향한 비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6·3 지방선거에서 경기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숫자는 693만 911명으로 앞서 발표됐으나, 실제로는 유권자 424명의 투표가 이 결과에서 빠져 있었던 걸로 드러났다.

(2)기사/뉴스요약

<앵커>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에서 29만 9천 원이 무단 결제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사례만 800건이 넘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이 모 씨는 지난 3일 본인의 체크카드로 갑자기 29만 9천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다.

이용한 적도 없는 생성형 AI, 챗GPT에서 가장 비싼 프로 요금제 한 달 치가 결제된 겁니다.

[이 모 씨/무단 결제 피해자 : 카드 번호를 입력한 적도 없고 근데 갑자기 결제가 돼서... 좀 진짜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다른 카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봐.]

이달 들어 챗GPT 프로 요금제는 국내에서 1천368건, 약 4억 원 정도 결제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858건이 부정 결제 의심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 NH농협, KB국민 등 주요 카드사 9곳을 통해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생년월일, 그리고 비밀번호 앞 2자리 등을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한데, 누군가 이런 정보들을 취득해 결제한 걸로 추정됩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유효한 카드 번호인지 아무 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결제를 한 다음에 그걸 묶어서 패키지 형태로 파는 이런 쪽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챗GPT 운영사인 오픈AI는 "챗GPT가 사용자 동의 없이 결제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도난된 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된 걸로 확인됐다"며 "해당 결제 수단을 비활성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의 국내 전자결제 대행사인 나이스정보통신도 부정 결제 의심 사례 가운데 700여 건은 결제 취소했고, 나머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결제나 신규 카드 등록을 임시 중지했다며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등에 이상 거래 탐지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에서 29만 9천 원이 무단 결제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CMMC	사이버보안 성숙도를 뜻한다. 미국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에 참여하거나 무기 체계를 수출하려는 모든 기업이 받아야 하는 필수 인증이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브레인 룯	뇌(Brain)와 섹다(rot)를 합친 신조어로, '뇌가 멍해지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발행하는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면서 유명해졌다. 처음에는 SNS에서 자주 일어나는 의미 없는 슛폼이나 콘텐츠 소비 등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무의미한 행동이 뇌를 멍친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특정 분야나 콘텐츠에 지나치게 중독된 상황을 비하하는 단어로 바뀌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12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금값 무섭게 치솟더니...고점 찍고 6개월 만에 '뚝'	경제	주요뉴스
2	'캡틴' 손흥민, 체코전 선발 출격...축구대표팀 스리백 가동	세계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금값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g당 2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11일) 금 시세는 1g당 19만 8천60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한때 19만 6천 780원까지 밀렸습니다.

국내 금값은 올해 초 1g당 26만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상승세가 꺾이며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점과 비교하면 약 25% 하락한 수준입니다.

중동전쟁 초기만 해도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선호 현상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됐는데요.

이에 가치가 오르고 있는 달러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국내 금값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g당 2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2)기사/뉴스요약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첫판에서 손흥민(LAFC)-이재성(마인츠)-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삼각편대를 앞세워 체코 격파에 나섭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12일) 오전 11시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체코를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릅니다.

킥오프 한시간여 앞서 공개된 홍명보호 선발 명단에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통산 4번째 월드컵에 나서는 손흥민은 오늘 득점하면 대회 통산 4호 골을 기록합니다.

박지성, 안정환을 넘어 한국인 월드컵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섭니다.

이재성과 이강인이 공격 2선에서 손흥민의 뒤를 받치고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시티)가 중원에 포진할 거로 보입니다.

홍 감독은 예상대로 지난해부터 갈고닦아온 스리백 수비 전술을 가동합니다.

이태석(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좌우 윙백을 맡고, 스리백 수비라인에는 이기혁(강원), 김민재(원현), 이한범(미트윌란)이 섭니다.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도쿄)가 낀다.

**핵심: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12일) 오전 11시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체코를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른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소 힘겨루기 대회	두 마리의 소가 서로 뿔을 맞대고 힘을 겨루는 한국의 전통 민속 경기로, 주로 농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전승됐으며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경주 산구의원	경북 경주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으로, 일제강점기인 1931년에 건립된 곳이다. 2026년 4월 13일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